

Sensibility of MTV Kids

Beyond Photograph

영상세대 감수성과 탈재현적 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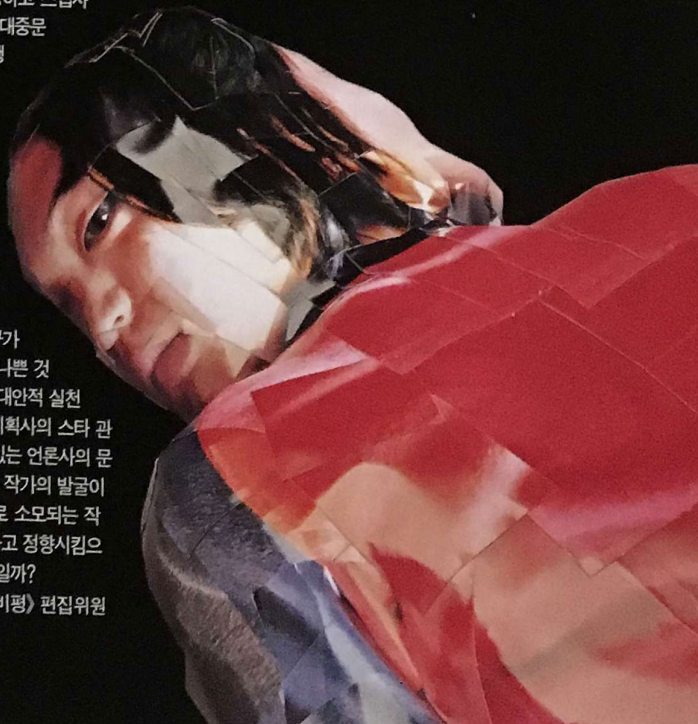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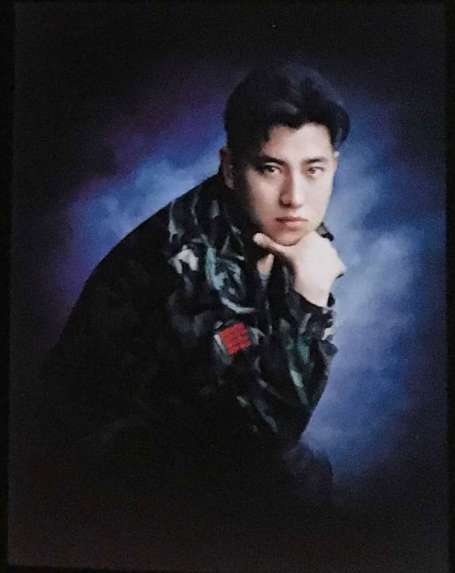
영상세대 감수성을 텍스트 중심주의에 대한 이미지
의 반란, 서사적이고 연속적인 논리적 구조에서 탈
피하고자 하는 하이퍼텍스트적이고 램덤식의 감수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재현체계에 대한 부정으로 이
해하기로 한다. 영상세대들은 근대적 규율권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유방식
이나 재현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재현방식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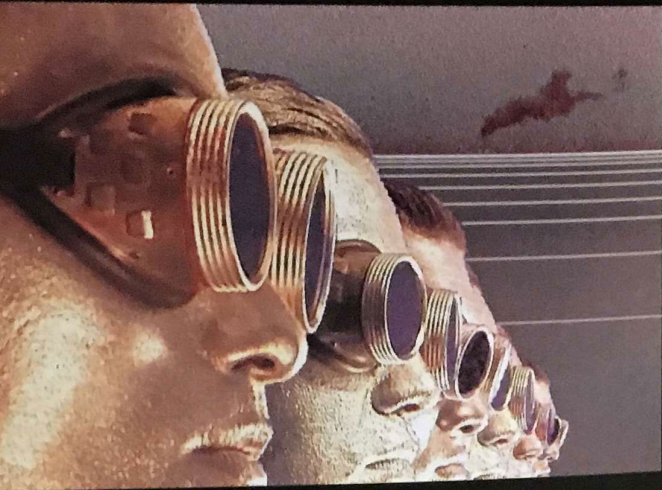
우리는 사진을 매체로 사용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탈재현적 추동들을 볼 수 있다. 우선 그들은
이미지를 상형이 종료된 결과의 장이 아니라 관객과 별이는 게임의 장으로 상정한다. 물론 그 게임은 언어적이
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기보다는 육체적이고 비서사적이고 다분히 감성적인 직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재미
있는 이들의 미적 태도를 규정한다. 심각하거나 엄숙한 것에는 침을 수 없는 존재론적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가
벼운 캐시밀른 이불 위에 몸을 던진다.

영상세대가 사는 방식은 즉흥적이고 직설적이고 표층적이며 육체적이고 배설적이고 스타일적이다. 그래서
한국적 특수성이 강제해온 사진의 본질론을 거부하며, 파인아트로서의 고급예술을 지양하고 스냅사
진과 기념사진 같은 대중적 시스템의 이미지를 선호한다. 그것을 수사법으로 이용하여 대중문
화의 허울성과 사회일반에 팽배해 있는 온갖 억압과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을 비웃고, 그 행
위를 즐긴다. 그 재미 속에서 기성적인 것들에 대한 강한 거부와 비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실천을 보게 된다. 한편 어린아이들이 상상력을 통해 주변의 사물들을 새로운
용도의 사물로 가장하여 노는 유희적인 놀이처럼, 텍스트(제목)를 통해 기존의 사물
(가위, 자, 설명서 등)에 재현되어 있는 기능이나 사용 용도를 변위 또는 변경시키기
도 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물에 내재된 재현의 틀을 깨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기성의 구태를 또한 즐긴다. 예술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줄도 알고,
예술담론과 사회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대응한다. 비판의 대상을 비판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순된 지점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벼움으로 몰고가서, 진정 가벼움의 미학'을 배반하는 우울한 풍경을 그릴 때가 있다.
상투화된 수사법으로 예술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회화화한다면 우리에게 탈출구가
없다. 허물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조금의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쁜 것
을 나쁘다고 말하기전에 왜 그것이 나쁘기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함께 필요하다. 문제는 대안적 실천
이다. 또한 이들은 태어나기보다는 만들어진다. 일종의 스타시스템에 의해서. 대중음반기획사의 스타 관
리 시스템처럼, 일부 영향력 있는 미술평론가나 큐레이터들, 그리고 그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언론사의 문
화부기자들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도 20 대 초반의 스타예술가가 출현하고 있다. 재능있는 작가의 발굴이
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예술담론의 보스주의와 상업주의가 결합하여 일회적으로 소모되는 작
가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평론가와 전시기획자의 사는 방식이 작가의 사는 방식을 규정하고 정형시킴으
로써 한때의 재미와 함께 작가의 자생력도 잃게 된다... . 작가에게 교실이데이는 있는 것일까?

이상학 <사진비평> 편집위원





위 · 아래 신혜경 <정원 #3> 적외선필름 컬러프린트, 컴퓨터그래픽 1999

왼쪽 페이지 위 유비호 <강철태양> 7개의 모니터를 이용한 싱글채널 비디오 2000
 특정 사건이 진행된 과정의 전개를 빌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가운데 김민혁 <Another Man 노병연> 사진에 혼합재료 127×101.6cm 1998
 아래 권오상 <340장의 나른함에 관하여> 컬러사진인화지 혼합재료 200×65×50cm 2000
 사진 한 장 한 장의 리얼리티가 결합해서 또다른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
 생명체의 교란이나 현실과 가상세계간의 모호함이 사진재료를 가공함으로써 왜곡되어
 표현된다. 그러나 이 사진은 현실세계의 완벽한 증거물로 남게된다.

